

보도시점 2024. 3. 3.(일) 11:00
3. 4.(월) 조간

배포 2024. 2. 29.(목) 16:00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

- 일시·장소 : 3월 4일(월) 10:30~16:00, 연암대학교 교육관
- 구 성 :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유관기관·협회, 관련 전문가 등
- 내 용 : 발족식, 기질평가 시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4일(월)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기질평가제)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한다.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하여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맹견사육허가제 개요 및 해외사례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책임자	팀 장	김현우 (044-201-2651)
		담당자	사무관	이상록 (044-201-2662)



□ 맹견사육허가제 개요

- (개념)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①도사견,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②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

- 결격사유 및 철회사유

-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동물학대·안전관리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법 제19조)
- (철회) ①맹견사육허가를 바운 개가 사람(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②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중성화 수술을 미이행한 경우(법 제20조)

- (제재조치) 무허가 사육 처벌, 사육허가의 철회, 인도적 처리 등

□ 주요 해외사례

국가	주요 맹견사육 자격요건	비고
프랑스	▶ 기질평가 후 위험도에 따라 4단계 사육제한 부과	
호주	▶ 위험한 개의 소유자는 연간 사육비 납부, 안전조치를 갖춘 특수 사육장에서 개 사육	
미국	▶ CGC테스트 등 민간 기질평가 활용 ▶ 합격한 개를 대상으로 맹견사육금지조항 면제	
독일	▶ 기질평가, 개면허시험 등을 통과 등 조건을 갖춘 자에게 맹견사육 허가	

□ 향후계획

- 하위법령 마련, 맹견사육허가제 운영 지침 제작·배포(~'24.3)
- 지자체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4.4)